高 甲 錫*
洪 文 植**

家族計劃要員이 생각하고 있는 業務環境에 관한 調査所見

目次
1. 序 言
2. 調査結果
3. 要 約

Ⅰ. 序 言

1973年에 邑面要員 655名, 保健所要員 151名, 都合 806名의 家族計劃要員이 家族計劃研究院에서 基礎訓練을 받았다. 이들은 要員으로 채용된 後 처음으로 정규훈련을 받은 자들이다.

訓練에 參加한 要員에게 1주과정의 훈련이 전부 끝날 무렵 질문서를 내어 477名에 대해 그들의 實態와 業務環境을 調査하였다. 조사된 對象은 大部分이 邑面要員들이다. 家族計劃 要員에 관한 實態調査는 그들을 訪問해서 實施했지만 研究院에서 訓練履修중 이들에 대해 平素의 職業과 關聯된 事項을 質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本設問에 反映된 應答內容은 이 方面의 調査研究나 要員實態의 몇가지 側面을 把握하는데 意義가 있다.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이 廣範圍한 組織으로 막대한 서어비스를 提供하고 있지만 事業性質上 對象婦人의 避姙受容與否는 역시 要員의 資質과 活動性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對象者를 찾아내고 그들에 대한 서어비스를 알선하는 業務가 要員에게 맡겨져 있고 그들의 啓蒙勸奬을 必要로 하는 對象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要員依存型 事業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은 一線要員의 事業遂行 能力이나 誠意에 의해 目標成就與否가 決定지워진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

Ⅱ. 調査結果

1. 要員의 年齡에 따른 몇가지 實態와 業務環境

이번 設問書에 의해 調査된 要員의 年齡別分布는 表 1과 같다.

表 1. 要員의 年齡別 分布

年 齡	數	百分比(%)
— 19	15	3.1
20 ~ 24	326	68.4
25 ~ 29	90	18.9
30 ~ 34	23	4.8
35 ~ 39	10	2.1
40 ~ 44	9	1.9
45 +	4	0.8
計	477	100.0

* 本 研究院 評價分析部長
** 本 研究院 文獻情報課長

家族計劃要員의 分布는 表 1에서 본바와 같이 20~24歲층에서 壓倒的으로 많아 70%에 接近하고 있다. 要員의 年齡에 따른 主要集計 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要員의 約 9%가 舊教 즉 天主教信者이며 25~29歲要員의 16%가 天主教 信者이다.

2) 年齡別로 職場生活을 하게된 動機를 보면 家事에 從事하는것 보다 社會活動에 參與하고 싶다는것이 大多數(69%)이고, 經濟的인 도움때문에 職場을 갖겠다는 要員은 18%에 不過하다. 특히 社會活動에 參與하고 싶다는 意見이 20~24歲層에서 74%로서 가장 높았다. 要員의 年齡이 上昇함에 따라 經濟的인 事情때문에 즉 生活에 도움을 갖고자 職場을 갖고 싶어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要員이 되기전에 職場經驗을 가진 者는 44%이었으나, 20~24歲 要員의 職場經驗은 26%에 不過하였다.

4) 要員自身이 結婚狀態에 따라 家族計劃業務를 遂行하는데 隘路를 느끼고 있다. 特히 19歲 以下는 73%, 20~24歲는 24%가 未婚女性으로서는 家族計劃 業務從事가 어려운것으로 記述하고 있다. 한편 結婚與否와는 별로 關係 없다는 反應이 36%이다. 그러나 기혼要員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이번 調査對象의 大多數(78%)가 未婚要員임을 勘案할 때 調査應答에 偏奇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要員이 되는데 "힘써준 분"은 他公務員이 壓倒的으로 많고 20~24歲 및 25~29歲인 要員들의 경우 오직 17%가 保健所長의 추천에 의해 任命되고 있으며 年齡別로 추천樣相이 크게 다르지 않다. 特異한 것은 家族計劃要員을 해달라고 請해서 그 職務를 맡았다는 사람이 全對象(477명중)의 7%로서 그 가운데는 30~34歲 부인이 가장 많은 構成比를 차지하고 있다.

6) 家族計劃 要員이 배우자로부터 職業을 그만두라는 종용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르겠다는 意思表示가 全對象(477)의 35%이며, 55%는 남편을 說得시키겠다는 反應이었다. 그러나 25~29, 30~34歲要員들이 年齡이 많은 要員보다 男便의 勸告에도 不拘하고 일을 繼續하겠다는 執念이 强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執念의 强度는 30~34歲에서 最高度를 이루고 있다.

7) 要員自身이 要員이 되기前에는 理想子女數를 2名以上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0~29歲 要員의 約 50%가 理想子女數를 2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家族計劃에 從事하므로써 그들의 理想子女數는 2名에 固定되었으며 要員年齡에 따른 偏差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家族計劃要員의 相當數가(19%) 親戚에게 勸告하는 理想子女數가 3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要員自體의 認識度는 現地事業에 波及할 效果가 많다. 특히 年少要員이 勸告理想子女數를 3名으로 생각하는 構成比가 높다는 것은 놀라운 事實이다.

9) 男便이 아이를 못낳는 경우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支配的이고(81%) 이는 要員年齡과는 별로 關係가 없다.

10) 家族計劃 啓蒙이 容易하다고 생각하는 生活水準은 중산층이며(49%) 그다음이 빈민층(32%)으로서 富裕層에 대한 啓蒙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年齡이 많은 要員일수록 生活水準에 의한 容易性 差異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 그러나 教育水準別로 볼 때는 水準이 낮은 層이 啓蒙에 어렵다고 答辯하고 있다. 따라서 生活水準과 教育水準이 密接하게 相關되어 있다면 위의 反應과는 모순된 應答인 것 같다.

이것 역시 年齡에 따른 偏差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12) 職業別 容易性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가 가장 接近하기 쉽고(62%) 그 다음이 농민이나 단순노동자(21%)로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 接近용이성 傾向이 크게 다르지 않다.

13) 家族計劃運動의 표어에 있어 要員의 約 半數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보다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要員自身의 態度形成이 問題點으로 登場할 수 있는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14) 要員으로서 勸奬하기 가장 어려운 避姙方法은 정관절제(전요원의 90%)이며 가장 용이한 方法은 먹는 避姙藥(전요원의 40%)으로 되어있다. 정관의 경우 年少層이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15) 對象婦人이 實踐하도록 하는데 要員이 얼마만큼 接觸했는가에 대해서 回數別로 볼 때 最頻數는 5回接觸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平均的으로 6回의 接觸에 의해 避姙을 受容토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要員年齡別로 볼 때 接觸回數가 年少層에서 조금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16) 要員이 行政上 目標量을 達成하기 위해 "먹는 避姙藥" 代를 간혹 要員自身이 支拂하고 있다는 事實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이었다. 이러한 肯定的인 應答은 相對的으로 年少層에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要員自身이 "먹는 避姙藥"代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要員이 全體(477名)의 9%에 不過하다. 이러한 現象은 콘돔이나 다른 避姙方法을 有料化할 경우 하나의 問題點으로 提起될 수 있으나 目標量制度를 改善할 경우 最少限으로 防止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왜냐하면 受容對象者의 選定作業과 要員의 質이 높아질 경우 더욱 效果的으로 이에 對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要員들이 自己職業에 滿足하느냐의 與否는 다른 職業과 마찬가지 傾向을 보일지도 모른다. 大多數의 要員들이 自己職業에 滿足치 않을 수 있다. 要員의 20%만이 自己職業에 滿足하고 있고 年少層에서 그런 傾向이 더 甚하다.

18) 90% 要員이 硏究院의 訓練을 받고 싶어 했으며, 나머지 10%는 마지 못해서, 또는 氣分전환을 위해 訓練에 參加한다는 것이다. 硏究院訓練을 받고 싶어 하는 要員들의 年齡을 보면 年少者層이 덜 積極的이다.

19) 硏究院에서 合宿할때 同僚들로부터 배울點이 많다거나 또 同僚의 品行이 模範的이라고 느낀 要員은 期待할 程度로 많지 못하다.

20) 要員이 合宿時 同僚를 사귀려고 努力한 것은 33%에 不過하고 나머지는 平凡하게 지난것 같다.

21) 硏究院의 訓練履修중 合宿生活이 "지날만하다"는 反應이 28%, "便利하다"는 것이 70%에 이른다. 年少要員이 便利하게 느끼는 점에 있어 高年齡層보다 더 못느끼고 있다.

22) 本硏究院 講義內容이 一般的으로 너무 쉬었다는 것이 82%이며, 理解하기 힘들어 흥미가 없었다는 것이 76%에 達했다. 年齡이 적을수록 理解하는데 힘들었다는 反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3) 敎育期間중 그날 그날의 講義 內容을 익혀가는데 어려움을 느낀 사람은 13%로서 그 外

의 87%는 보통이거나 쉽다고 答辯하고 있다. 年齡에 별로 差異가 없었다.

24) 要員들이 全教育課程을 통해 그들이 느낀 印象을 보면 "教育期間중에는 매우 힘이 겨워 싫었지만 끝내고 보니까 짧은 期間에 고생한 보람이 있다"가 70%로서 우선 教育効果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25) 要員訓練課程에 挿入된 구룹別 討議結果의 發表 및 역할극(Role playing), 助教의 구룹 指導, 또는 最終試驗에 대한 意見은 肯定的이고 効果的이었다고 評價된다.

26) 前任者가 要員職을 떠난 理由를 보면

1. 移　徙……5%
2. 結　婚……33%
3. 轉　職……23% (결핵, 모자보건 요원 포함)
4. 家庭事情……12%
5. 海外就業……11%
6. 其　他……16%

으로 答辯하고 있다.

위의 答辯이 어디에 根據를 둔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結婚이나 家庭事情 때문에 離職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年少 要員일 경우 더욱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2. 要員의 結婚狀態에 따른 몇가지 實態와 業務環境

이번 設問書에 의해 調査된 啓蒙員의 結婚狀態 分布는 表2와 같다.

表 2. 要員의 結婚狀態別 分布

結婚關係	數	百分比
既　婚	91	19%
未　婚	370	78%
無記載	16	3%
計	477	100%

이번 調査對象 477名의 配偶關係를 보면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未婚이 78%로서 既婚要員의 4倍에 이르고 있다. 要員의 배우관계에 따른 重要集計 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結婚狀態 즉 既婚與否에 따라 家族計劃 現地事業 遂行에 관한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既婚女性의 40%가 未婚女性으로는 要員業務를 遂行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見解인데 反해 未婚女性은 結婚與否와는 별로 關係가 없다고 答辯하고 있다.

2) 既婚要員과 未婚要員間에는 理想子女數에 있어서 差異가 나고 있다. 즉 既婚要員은 2.6名인데 比해 未婚要員은 2.9名으로 0.3名의 差를 보이고 있다. 要員의 子女數에 대한 態度가 教育水準이 높고 都市에 사는 婦人에 比해 높다는 것은 平素의 그들의 業務活動에 支障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要員으로 活動하기 以前과 以後의 態度에 약간 變化가 있었지만 이미 小子女形成에 대한 利點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을때 對象者들에 대해 보다 説得力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要員의 結婚狀態別로 啓蒙하기 쉬운 生活水準을 보면 既婚女性이 中產層에 더 集中 되

어있고 未婚女性도 비슷한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旣婚女性에 比해 貧民層에 대한 接近이 쉽다고 느끼고 있다. 富裕層에 대한 啓蒙의 容易性은 未婚女性이 旣婚女性보다 조금 쉽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要員의 立場이 그 地域社會의 構成員들의 貧富程度에 따라 상당히 作用을 받고 있는 것 같다.

4) 教育水準에 따른 啓蒙의 容易性與否는 結婚狀態에 의해 크게 影響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旣婚女性이 未婚要員보다는 低教育層에 容易性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旣婚對象者 男便쪽의 職業에 따라 啓蒙의 容易性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에 대한 啓蒙이 다른 職業群보다 쉽다고 指摘했으며 가장 接近하기 힘든 對象者는 企業을 하고 있는 富裕層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農村이나 都市의 單純勞動者가 啓蒙하기 힘든 集團으로 指目되어 있다.

5) 居住地別로 볼 때 啓蒙하기 쉬운 避姙對象은 中都市 婦人이고, 가장 힘든 婦人은 農村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傾向은 要員의 結婚與否에 따라 크게 差異는 없지만 未婚女性이 都市에서 旣婚要員에 比해 相對的으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6) 家族計劃 표어에 있어 未婚要員이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쪽에 다소 매력을 느끼고 있는 反面 旣婚要員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가 보다 効果的인 표어라고 答辯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이 未婚要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자"는 口號는 어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要員이 勸奬하기에 가장 어려운 方法은 精管切除로서 旣婚與否에 關係없이 約 90%의 要員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精管手術普及은 새로운 接近方法이 摸索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要員, 施術醫, 特別캠페인 等을 考慮하여 一般要員事業(IUD, Loop, 및 콘돔과 區別)과는 方向을 달리할 必要性이 間接的으로 指摘되고 있다.

9) 普及하기가 가장 쉬운 避姙方法을 보면 旣婚要員은 루우프로 答辯하고 있으며, 未婚要員은 먹는避姙藥으로 答辯하고 있다. 왜 이러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을까?

9) 家族計劃을 實踐하는데 가장 많이 接觸했던 數를 보면 平均的으로 6回이지만 旣婚要員이 未婚要員에 比해 接觸回數가 5回로서 적게 나타나고 있다.

10) 먹는避姙藥代를 目標量을 達成하기 위해 要員自身이 支拂했다는 經驗與否에 있어서 旣婚要員이 未婚要員보다 적게 經驗하고 있다.

11) 現職業에 대한 滿足性與否를 보면 旣婚要員이 未婚要員에 比해 不滿足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構成比가 조금 높다. 그러나 이들 旣婚要員은 與件은 滿足치 못하지만 重要한 事業이므로 責任感있게 일한다는 反應이 未婚要員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職場에서의 상사 및 職員이 要員을 대하는 態度에 있어 旣婚要員이 未婚要員보다 한결 더 부드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周圍의 아는사람으로 부터도 理解나 協助를 받는 點에 있어 未婚女性보다 한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施術醫와의 協助面에 있어서도 旣婚要員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새마을 運動이 가족계획을 보급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反應이 全體調査對象者의 54%이며, 별 영향이 없다거나,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4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一線事業의 有機的 協助問題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고 특히 새마을 事業 담당職員과의 紐帶가 切實히 要望된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 要員의 結婚狀態別로 보면, 旣婚要員이

새마을 事業과 連結시켜 일을 해나아가는데 훨씬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14) 講義內容을 理解하거나 興味度에 있어 旣婚要員이 未婚要員에 比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訓練效果面에서 일단 旣婚要員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訓練時 保健所見學課程이 未婚要員에게는 크게 도움을 준 것 같으나 旣婚要員에게는 그저 參考가 되었다는것이 過半數이었다.

15) 教育課程中 구룹討議의 價値를 인정하고 있다. 未婚要員이 더욱 그 과정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反面 旣婚要員은 未婚要員에 比해 必要度가 약간 낮다.

16) 助教의 구룹指導가 效果的인가에 대한 反應은 44%가 肯定的인 것에 反해 나머지 54%는 表現의 差異는 있지만 否定的으로 나타났다. 旣婚要員이 肯定的인 것에 反해 未婚要員이 否定的인 反應으로 나타난데 대한 適切한 對策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7) 前職者의 離職事由를 보면 旣婚要員과 未婚要員間에 약간의 意見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未婚要員은 結婚으로 인해 離職하는 경우가 離職者의 1/3로 알고 있으나 旣婚要員은 1/4 程度로 알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前職者와 現職者間에 空席을 配置함에 있어 同一한 結婚狀態者를 配置하는 傾向이 있어 그러한 反應이 있을지도 모른다. 旣婚要員의 경우 91名중 17% 즉 15名이 海外就業으로 離職했다고 記述하고 있으나 未婚의 경우는 9%(370명중 33名)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의 推理가 可能하다.

3. 要員의 教育程度에 따른 몇가지 實態와 業務環境

이번 設問書에 의해 調査된 要員의 教育程度 分布는 表 3과 같다.

表 3. 要員의 教育程度別 分布

教育程度	數	百分比(%)
中 學 校	183	38
高 校	262	55
初級 및 一般大學	24	5
無 記 載	8	2
計	477	100

註 1. 中高校과정 看護學校卒業生은 各各 中·高校에 포함하였음.
2. 初級및 大學과정 간호학교는 初級및 一般大學에 포함하였음.

要員의 教育程度에 따른 集計結果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一般中學課程을 履修한 要員이 가장 職場經驗이 없으며, 그 다음이 一般高校出身이다.

2) 高校과정 看護學校, 初級 및 大學과정 看護學校 卒業生의 경우 家族計劃要員으로 就職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答辯하고 있으며 특히 高校과정 看護學校 卒業要員의 15%는 要員으로 일해 달라는 要請이 있어서 臨했다는 反應이 있었다. 反面에 中學校나 高等學校의 一般과정을 履修한 要員은 힘들었거나 상당한 競爭을 거쳐 要員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 教育程度가 낮거나 看護技術教育을 받지 아니한 層이 結婚後 配偶者의 離職慫慂이 있는 경우 이에 順應하겠다고 答辯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未婚者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問題點을 안고 있는것 같다.

4) 男女가 婚前에 結婚約束 없이 性經驗을 갖는데 대한 意見은 教育程度나 專門的技能에 따라 差異點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그것을 罪惡視한다거나 도저히 社會倫理上 용납치 못할 犯罪視한다는 態度는 稀薄하고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肯定的인 方向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婚前의 동정에 대한 態度는 教育程度에 따라 多少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低教育層이 處女性觀念에 있어 약간 높다. 이러한 樣相은 婚前女性의 事故姙娠(unwanted pregnancy)의 頻度가 높아질 것으로 推測된다.

6) 一般的으로 性에 대한 觀念이 開放的일 경우 家族計劃事業이 容易해질 것으로 推理하는 要員이 全體의 58%이며 오히려 힘들 것으로 觀望하는 要員이 27%이었다. 教育程度別로는 差異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7) 看護技術을 習得한 要員일수록 적은 接觸回數로 避姙實踐에 이르게 한다. 教育期間보다는 特殊教育을 받은 사람이 要員으로서 보다 信賴感을 받으면서 現地活動을 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8) 高校, 初級 및 大學課程의 看護學履修者가 現職에 더욱 滿足치 못하고 있다. 反面에 一般 中學校卒業生이 高校卒業生보다 現職에 더 滿足하고 있다는 實情을 勘案할 때 역시 要員의 資格要件과 滿足度라는 逆相關의 關係에 있는 것 같다.

9) 職場에서 事業上 車輛支援이나 一般用品의 使用에 不便하다고 느끼고 있으며(91%) 教育程度에 따른 差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管內의 施術醫와의 協助關係는 教育水準이 높을 때 오히려 障碍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初級·大學課程 看護學 履修者의 경우 그들의 23%가 協助가 잘 안된다고 答辯하고 있다.

11) 職場에서 他業務를 맡기므로서 다소나마 어려움을 느낀다는 反應이 59%로서 教育程度가 낮을수록 그렇게 느끼는 要員이 더 많다.

12) 實習地의 見學效果는 參考가 되었다는것이 44%이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50%이다. 따라서 參考이상으로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要員의 勤續年數에 따른 몇가지 實態와 業務環境

이번 設問書에 의해 調査된 要員의 勤續年數 分布는 表 4와 같다.
要員의 勤續年數에 따른 集計結果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政府에서 普及하는 避姙方法중 勸奬하기 가장 쉬운 方法과 어려운 方法이 要員의 勤續年數에 의해 별 差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普及하기 가장 容易한 方法은 루우프이고 그다음이 먹는避姙藥으로 되어 있다. 어려운 方法으로는 정관절제이며 콘돔 역시 普及하는데 약간의 隘路事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勤續年數에 따라 "家族計劃 實踐者중 實踐하기까지 가장 많이 接觸한 回數"가 差異를 보이고 있다. 3年以上 勤務者가 3年未滿 勤務者에 比해 平均的으로 1回를 節減하고 있다(3년미만은 平均 6回, 3年以上 勤務者는 平均 5回).

表 4. 要員의 勤續年數別 分布

勤續年數	數	百分比(%)
1년미만	267	56
1~2	166	35
2~3	23	5
3~4	8	2
4~5	3	2
5~6	1	
5^{+}	7	
무기재	2	
計	477	100

3) 勤續年數에 따라 "目標量을 達成하기 위해 먹는 避妊藥代를 要員이 支拂해야만 했던 경우"에 다소 差異를 보이고 있다. 勤續年數가 3年以上일때 그 傾向이 훨씬 적다. 그러므로 勤續年數가 짧을수록 먹는 避妊藥代를 要員이 더 負擔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結果는 우선 두가지로 解析할 수 있다. 첫째로 目標量의 數字達成에 급급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로 보다 效果的인 普及을 위해서 要員自身이 金錢的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普及에 心血을 기울일 수 있는 등… 精密한 관찰을 해보지 않는限 먹는避妊藥의 虛失率을 確實하게 말할 수는 없다.

4) 現職에 대한 滿足與否는 勤續年數가 길어짐에 따라 不滿足스런 態度이다.

5) "家族計劃 要員이 農村女性의 指導者라고 自處할 수 있는가"의 與否에 대해 長期勤續者(3年以上)가 比較的 肯定的인것에 反해 短期勤續者(3年未滿)도 肯定的 反應이지만 後者가 보다 消極的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6) 職場에서의 業務環境(職員이 要員에게 대한 態度)은 勤續年數가 짧을수록 더 支援을 해준 것 같고 勤務年數가 길면 上士나 同僚가 별 關心이 없거나 非協助的인 경우가 相對的으로 短期勤續者에 比해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7) 職場에서 車輛이나 用品 使用時 充分한 協助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주 "不便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勤務年數가 긴 경우 조금 낳은 協助를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과 關聯해서 생각할때 業務面에서의 支援은 勤務年數가 긴 要員이 더 많은 協助를 얻고 있는것 같다.

8) 教育課程중 노—트를 정리한다던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열심히 했다든가……하는 程度는 勤續年數가 많아짐에 따라 誠意가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勤務年數가 짧은 要員이 보다 誠意있게 訓練教育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9) 要員의 11%가 夜間講義 및 早朝講義등 너무 힘겨워서 오히려 學習에 逆效果가 있었다고 答辯하고 있으며, 나머지 68%는 힘겨웠지만 짧은 期間에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反應하고 있다. 한편 그저 普通으로 힘든일 없이 無難하였다고 答辯한 要員이 20%에 達했다. 勤續年數가 짧을수록 夜間講義나 早期訓練에 否定的인 反應이었음을 參考할때 訓練의 內容이나 目的을 덜 理解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10) 助教의 구룹指導가 效果的이었다는 反應이 44%로서 나머지 56%(무기재포함)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거나 별 도움이 못되었다는 等 助教의 活用에 대해서는 再考해볼만한 事項으

로 指摘될 수 있다. 勤續年數에 따른 差異가 있어 3年以上 勤務者의 경우 특히 否定的인 反應이었다. 訓練 計劃의 編成을 勤務年數別로 했을때 이러한 問題는 解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試驗을 치르는 것은 訓練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꼭 實施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全體 477名중 92%가 "試驗때문에 負擔은 있었지만 배운 것을 더 많이 익혔다고 생각한다"라는 反應이 있었다. 勤續年數에 따라 要員의 試驗觀이 조금 달랐지만 대체로 짧은 勤續年數를 가진 要員이 微細하나마 試驗치른 것에 態度의 差異(否定的)를 보여주고 있다.

5. 要員의 資格에 따른 몇가지 實態와 業務環境

이번 調査에 의해 設問된 要員의 資格別 分布는 表 5와 같다.

表 5. 要員의 資格別 分布

資 格	數	百分比(%)
無 資 格	9	2
看護員 및 助産員	15	3
看 護 員	32	7
助 産 員	1	0
看護補助員	414	87
무 기 재	6	1
計	477	100

要員의 資格에 따른 몇개 集計結果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資格別로 要員生活에 대한 動機는 大多數가 家事에 從事하는것 보다 社會活動에 參與하는데 意義가 있으므로써 그 動機를 찾을 수 있으나 看護員 및 助産員資格을 가진 要員은 職場生活 動機가 經濟的인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쪽이 즉 社會活動 動機나 經濟的 動機가 一線事業에 充實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問題는 確實히 糾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家族計劃 要員이 가까운 친척에게 勸하고 싶은 理想男兒數는 約 50%가 0~1名이나 나머지 50%는 2名이거나 未詳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現象은 要員 自身이 現想子女數에 대한 確固한 信念이 없는데다가 더욱이 "딸·아들 구별없이 둘만 낳자"는 家族計劃運動 自體에 대한 회의적인 "모랄"이 形成되고 있는것 같다.

3) 婚前의 處女性與否에 대해 要員自身이 女子의 處女性에 强力한 主張을 하고 있는 것에 反해 男子의 童貞에 대해서는 比較的 寬容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要員의 경우에 男尊女卑 思想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性에 대한 開放與否의 意見은 開放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看護員資格을 가진 要員이 다른 資格者에 比해 開放度가 조금 强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啓蒙하기 쉬운 生活水準은 中產層이고 그 다음이 貧民層으로서 看護員資格을 가진 要員이 中產層에 많이 集中되어 있다. 한편 看護員 및 助産員의 資格을 가진 要員은 貧民層이 오히려 中產層보다 啓蒙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6) 教育程度나 職業에 있어서 너무 낮은 水準에 있거나 職業이 企業人이거나 單純勞務者인 경우 啓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單純勞務者나 農業從事者에 대한 接近方法이 새로이 開發되지 않는 限 이들에 대한 啓蒙이 한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姙娠普及에 露出되지 않은 抵抗集團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7) 家族計劃啓蒙이 容易한 地域으로는 中都市이고 그 다음으로는 農村 및 大都市로 記述하고 있다. 그러나 調査對象의 大部分이 邑面要員이기 때문에 실제로 都市 家族計劃 事業에 있어서의 普及容易性은 推測에 不過한 것 같다.

8)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라는 표어는 계몽상 효과적으로 이용된다가 24%, 現實과 거리가 멀어서 잘 利用되지 않는다가 30%,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라는 標語가 보다 效果的이다…가 45%로 나타났다. 看護員의 資格에 의해 커다란 偏差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標語自體에 둘만 낳자는 것 보다는 알맞게 낳자는 표어가 더 어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이것은 要員의 反應이다.

9) 勸奬하기에 제일 어려운 方法은 정관으로 나타나 있으나 資格이 없거나 看護員 및 助産員資格을 가진 要員이 다른 資格所有者에 比해 相對的으로 미미하나마 덜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10) 먹는 避姙藥이 제일 勸奬하기 쉬운 方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다른 方法이 施術이나 異物質을 몸에 挿入 또는 附着해서 姙娠을 防害한 代身 經口投藥에 의해서 姙娠을 防害하는 方法이 보다 勸奬이 쉬운것은 比較的 投藥이라는 方法이 medical behavior에 favorable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한편 有料로서 藥代를 걷우어 드리기 때문에도 그 理由가 있는 것인지 詳細히 알길이 없다.

以上과 같이 本 硏究院에서 實施한 要員의 訓練履修중 그들이 處하고 있는 業務環境과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및 訓練에 관한 所見을 簡單하게 分析하였다. 分析內容 중 몇가지 重要한 事項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Ⅲ. 要　　約

1) 要員의 約 9%가 天主敎 信者로서 그중 25~29歲要員의 16%가 天主敎信者이다. 이들이 事故姙娠(避姙失敗로 인한 不願姙娠)에 대해서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綿密한 觀察이 必要할 것 같다.

2) 經濟的인 動機보다 막연하게 社會活動을 하고 싶어 要員으로 活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과연 어느程度의 執念과 誠實性을 갖고 一線活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再考의 餘地가 있다.

3) 家族計劃 要員중 受動的으로 職務要請을 받아 要員으로 活動하게 된 사람이 7%에 不過하다. 이들은 大部分 30~34歲의 婦人으로서 資格을 지닌 者들이다(看護員出身이 가장 많음).

4) 年齡이 많을수록 配偶者로부터 職場을 고만두라는 종용을 받았을때 强力히 說得시키겠다는 意思를 反映하고 있다.

5) 家族計劃 要員의 相當數(19%)가 親戚에게 勸告하는 理想子女數가 3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要員自體의 小子女 形成에 대한 態度가 問題될 수 있으며 一線事業에 波及할 可能性이 많

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6. 家族計劃運動의 標語에 있어 要員의 約半數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보다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이것 역시 要員自身의 小子女에 대한 態度形成上 問題點으로 登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標語自體가 共感을 주는 換言하면 어필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必要하다.

7) 要員이 避姙계몽對象 婦人이 實踐하도록 하는데 얼마만큼 接觸했는가에 대해서 回數別로 볼때 最頻數는 5回接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平均 6回 接觸에 의해 避姙을 受容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要員年齡別로 볼 때 接觸回數가 年少層에서 조금 더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要員이 行政上 目標量을 達成하기 위해 "먹는 피임약" 代를 간혹 要員自身이 支拂하고 있다는 事實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이었다.

9) 大多數의 要員이 自己職業에 滿足치 않고 있으며, 오직 要員의 20%가 自己가 하는일에 滿足하고 있으며 年少層에서 그런(不滿足) 傾向이 더 甚하다.

10) 研究院 講義內容이 一般的으로 너무 쉬었다는 것이 調査對象의 82%이며, 理解하기 힘들어 興味가 없었다는 것이 16%이었다. 年少要員이 理解하는데 더 힘 들었다. 그러나 講義內容이 너무 平凡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訓練內容을 再考해볼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

11) 要員의 理想子女數에 있어서 旣婚要員이 未婚要員에 比해 0.3名이나 낮다. 따라서 旣婚要員이 보다 說得力 있게 啓蒙活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反映되고 있다.

12) 普及하기가 가장 쉬운 避姙方法을 보면 먹는 避姙藥으로 集約될 수 있으나 旣婚要員은 차라리 루우프가 더 普及하기가 쉽다고 應答하고 있다. 따라서 要員이 旣婚女性으로 代置된다면 루우프의 普及이 더 많이 實現될 수 있다는 假設이 提起될 수 있다.

13) 講義內容을 理解하거나 興味度에 있어 旣婚要員이 未婚要員에 比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訓練時 保健所 見學課程이 未婚要員에게는 크게 도움을 준 反面 旣婚要員에게는 그저 參考가 되었다는 것이 過半數이었다.

14) 訓練助敎의 구룹指導가 "効果的인가?"에 대한 反應은 44%가 肯定的인데 反해 나머지 54%는 表現의 差異는 있지만 否定的으로 나타났다. 특히 未婚要員이 否定的인 反應이었다.

15) 管內의 施術醫와의 協助關係는 敎育水準이 높은 要員일수록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大學課程 看護學履修者의 경우 그들의 23%가 協助關係에 있어 圓滿치 않다고 答辯하고 있다.

16) 要員의 勤續年數(경험)가 많음에 따라 接觸回數가 적어도 實踐케 하는 技術을 지닌 것 같다(平均 5回의 접촉으로 實踐케 한다).

설 문 서

1. 연 령(만) :
   1. ( ) 20세 이하
   2. ( ) 20~24세
   3. ( ) 25~29세
   4. ( ) 30~34세
   5. ( ) 35~39세
   6. ( ) 40~44세
   7. ( ) 45세 이상
2. 결혼 관계 :
   1. ( ) 기혼
   2. ( ) 미혼
3. 최종 출신학교 :
   1. ( ) 중학교
   2. ( ) 고등학교
   3. ( ) 중학과정 간호학교
   4. ( ) 고교과정 간호학교
   5. ( ) 초급 및 대학과정 간호학교
   6. ( ) 일반대학 이상
4. 면 허 :
   1. ( ) 없음
   2. ( ) 간호원 및 조산원
   3. ( ) 간호원
   4. ( ) 조산원
   5. ( ) 간호 보조원
5. 총 가족계획 사업 종사기간 :
   1. ( ) 1년미만
   2. ( ) 1년이상~2년미만
   3. ( ) 2년이상~3년미만
   4. ( ) 3년이상~4년미만
   5. ( ) 4년이상~5년미만
   6. ( ) 5년이상~6년미만
   7. ( ) 6년이상
6. 종 교 :
   1. ( ) 불교
   2. ( ) 신교
   3. ( ) 구교
   4. ( ) 종교없음
   5. ( ) 기타
7. 직장 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1. ( ) 가사에 종사하는 것 보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애서
   2. ( ) 가족계획 요원은 꼭 하고 싶었던 직업이므로
   3. ( ) 당분간 집에서는 할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4. ( )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8. 요원이 되기 전에는?
   1. ( ) 직장을 가진 바 없다.
   2. ( ) 다른 직장에서 일했다.
   3. ( ) 보건소의 다른 직종에서 일했다.
9. 가족계획 요원은 :
   1. ( ) 미혼여성으로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2. ( ) 결혼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3. ( ) 나이어린 사람은 안될 것 같다.
   4. ( ) 연령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10. 내가 계몽원이 되는데 힘써 준 분은?
    1. ( ) 국회의원이다.
    2. ( ) 보건소장이다.
    3. ( ) 타 기관의 공무원이다.
    4. ( ) 지방유지이다.
11. 가족계획 계몽원으로 취직을 하는데
    1. ( ) 힘 들었다.
    2. ( ) 시험(공개) 결과로 되었다.
    3. ( ) 별 어려움 없었다.
    4. ( ) 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근무하게 됐다.

12. 내가 계몽원으로 채용된 당시의 기분은

1. ( ) 좋았다.
2. ( ) 보통이었다.
3. ( ) 과히 나쁘지는 않았다.
4. ( ) 원하지 않은 자리였다.

13. 읍, 면 계몽원으로 재직중 시집을 갔을 때 또는 결혼중인 경우 직장을 그만두라고 남편이 요구한다면?

1. ( ) 그만 두겠다.
2. ( ) 설득 시키겠다.
3. ( ) 그만 둘 수 없다.
4. ( ) 이혼 하겠다.

14. 내가 가족계획 요원이 되기 전에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1. ( ) 전연 관심도 없었고 아는 바도 없었다.
2. ( ) 약간 관심을 갖고 있었다.
3. ( ) 관심이 많았다.

15. 요원이 되기 전에 내가 생각한 이상 자녀수는(남아, 여아에 관계 없을 때는 "계"란에만 기입)

계 ( )명 남 ( )명 여 ( )명

16. 가족계획 요원은

1. ( ) 우선 가족계획 실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 ) 자신의 모범적인 가족계획 실천 여부와는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3. ( ) 오히려 많은 자녀를 가진 분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17. 내가 현재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는(남, 여 상관없는 경우에는 "계"란에만 기입)

계 ( )명 남 ( ) 명 여 ( ) 명

18. 남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1. ( ) 그대로 살아야 한다.
2. ( ) 이혼하는 편이 좋다.
3. ( ) 양자를 얻는 것이 좋다.

19.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1. ( ) 양자를 얻는 것이 좋다.
2. ( ) 남편이 다른데서 낳아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 ) 남편 뜻대로 따른다.
4. ( ) 없는대로 만족해야 한다.

20. 가까운 친척(형제 자매등)에게 권하고 싶은 이상 자녀수는

계 ( )명 남 ( )명 여 ( ) 명

21. 남녀가 혼전에 결혼 약속 없이 성의 경험을 갖는데 대한 의견은

1. ( ) 범죄행위다.
2. ( ) 좋지 못한 일이다.
3. ( )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4. ( ) 후일 결혼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된다.

22. 혼전의 "처녀성" 또는 "동정"에 대한 의견은?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1. ( ) 절대로 지켜야 한다.	1. ( ) 절대로 지켜야 한다.
2. ( ) 지키는 것이 좋겠다.	2. ( ) 지키는 것이 좋겠다.
3. ( ) 별 의미가 없다.	3. ( ) 별 의미가 없다.
4. ( ) 모르겠다.	4. ( ) 모르겠다.

23. 일반적 성에 대한 관념이 개방적인 경우

1. ( ) 가족계획 사업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2. ( ) 별 관계가 없을 것같다.
3. ( ) 오히려 힘들 것이다.
4. ( ) 모르겠다.

24. 가족계획 계몽원은 다음의 어떠한 대상이 가장 쉬운가?

1. ( ) 빈민층 ( ) 부유층 ( ) 중산층

2. ( ) 교육 수준이 보통인층
   ( ) 교육 수준이 높은층
   ( ) 교육 수준이 낮은층
3. ( ) 공무원등 봉급 생활자
   ( ) 기업인
   ( ) 농민 노동자
4. ( ) 농촌 사람
   ( ) 중 도시사람
   ( ) 대도시 사람

25.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는 계몽상
   1. ( )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2. ( )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잘 이용되지 못한다.
   3. ( )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고 하는 표어가 보다 효과적이다.

26. 권장하기 제일 어려운 피임방법은?
   1. ( ) 정관절제
   2. ( ) 콘돔
   3. ( ) 먹는 피임약
   4. ( ) 루우프

27. 권장하기 제일 용이한 피임방법은
   1. ( ) 정관절제
   2. ( ) 콘돔
   3. ( ) 먹는 피임약
   4. ( ) 루우프

28. 가족계획 실천자중 그 사람이 실천하기 까지 내가 가장 많이 접촉했던 회수는?
   1. ( ) 3회이내
   2. ( ) 5회이내
   3. ( ) 7회이내
   4. ( ) 10회이내
   5. ( ) 10회이상

29. 행정상 목표량의 달성을 위해 먹는 피임약대를 내돈으로 다소 지불한 경험이
   1. ( ) 있다.
   2. ( ) 없다.

30. 행정상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먹는 피임약대를 요원이 지불해야만 했던 경우가
   1. ( ) 간혹 있다고 들었다.
   2. ( )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3. ( )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4. ( ) 모르겠다.

31. 앞으로 나는 가족계획 요원으로서
   1. ( )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일 하겠다.
   2. ( ) 다른 직업을 구할 때 까지 당분간 계속하겠다.
   3. ( ) 당분간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만 두겠다.

32. 현 직업에 대하여
   1. ( ) 만족한다
   2. ( ) 보통이다.
   3. ( ) 불만이지만 하는 수 없이 일하고 있다.
   4. ( ) 여건이 만족치 못하지만 중요한 사업이므로 책임감 있게 일한다.

33. 이번에 훈련을 받으러 온데 대하여
   1. ( )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참가할 뿐이다.
   2. ( ) 보다 나은 일선사업 활동을 위해 일찍부터 원했던 것이다.
   3. ( ) 일선에서 일만하니까 너무 따분한 터이라 기분전환한다는 마음이다.
   4. ( ) 귀찮고 싫은 일이지만 차출 됐으니까 하는 수 없이 참가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34. 언제든지 내가 계몽원을 그만 두었을 때
   1. ( ) 멍에를 벗은 기분이 될 것이다.
   2. ( )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숨긴다.

3. ( ) 주변 사람에게나마 가족계획 계몽을 한다.

35. 나는 가족계획 계몽원이며 또는 농촌 여성 지도자라고
1. ( ) 생각한다.
3. ( ) 가족계획 계몽만 하면 된다.
2. ( ) 생각해 본일 없다.
4. ( ) 생각은 하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36. 현 직장에서의 상사 및 직원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는
1. ( ) 관심이 많고 협조적 이다
3. ( ) 비협조적이다.
2. ( ) 별관심이 없다

37. 내 주위의 아는 분들은 내 직업에 대하여
1. ( ) 잘 이해하고 협조적이다.
3. ( ) 일반적으로 무관심하다.
2. ( ) 할만한 직업이 못된다고 비평한다.

32. 직장에서의 사업상 차량 및 일반 용품의 사용에는
1. ( ) 편리하다
2. ( ) 보통이다.
3. ( ) 아주 불편하다.

39. 우리 관내의 시술의사는
1. ( ) 협조가 잘 된다.
3. ( ) 협조가 잘 안된다
2. ( ) 보통이다.

40. 새마을 운동은 가족계획을 하는데
1. ( ) 크게 도움이 된다.
3. ( )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
2. ( ) 별 영향 없다.

41. 직장에서 가족계획 업무외에 다른 일도 맡겨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1. ( ) 많다.
2. ( ) 없다.
3. ( ) 간혹 있다.

42. 본 연구원 기숙사 합숙생활중 동료들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씨가
1. ( ) 유치하다.
3. ( ) 보통이다.
2. ( ) 저속하다.
4. ( ) 배울점이 많다.

43. 합숙중 같은 방에 기거하는 동료의 품행 및 인격이
1. ( ) 사귈만하다.
3. ( ) 저질이다.
2. ( ) 도덕적이지 못하다.
4. ( ) 훌륭하다.

44. 직장생활중 상사에게 칭찬을 받은 일이
1. ( ) 있다.
2. ( ) 없다.
3. ( ) 기억이 나지 않는다.

45. 직장 생활중 상사에게 꾸중이나 주의를 받은 일이
1. ( ) 있다.
2. ( ) 없다.
3. ( ) 기억이 나지 않는다.

46. 직장 생활중 동료와 다툰 일이
1. ( ) 많이 있다
3. ( ) 없다.
2. ( ) 한두번 있다
4. ( ) 기억이 나지 않는다.

47. 가족계획 연구원에서 동료들과 1주일동안 지나면서
1. ( ) 사귈려고 노력했다.
3. ( ) 사귀지 않으려고 피하였다.
2. ( ) 평범하게 지났다.

48. 기숙사 합숙 생활은
1. ( ) 불편하다.
2. ( ) 편리하다.
3. ( ) 지날만하다.

49. 교육중 본 연구원 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1. ( ) 재미 있었다.
2. ( ) 이해하기 힘들어 흥미가 없었다.
3. ( ) 보통 이었다.

50. 교수의 강의는
1. ( ) 너무 쉬운 말이었다.
3. ( ) 좀 어려운 말이었다.
2. ( ) 그 정도가 적당했다.
4. ( ) 이해하기 곤란했다.

51. 교육기간중 그날 그날의 과제를 익혀가는데
1. ( ) 매우 힘이 든다.
2. ( ) 힘든다.
3. ( ) 보통이다.
4. ( ) 쉽다.

52. 이번 교육 훈련이 끝난 다음 성적을 근무처에 통보하고 수료식을 할 때도 공개하는 것이
1. ( ) 좋겠다
2. ( )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3. ( ) 싫다

53. 나는 노—트 검사에
1. ( ) 신경을 쓴다.
2. 신경을 쓰지 않는다
3. 아무렇게나 한다.

54. 일선 가족계획 사업소 견학으로
1. ( )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았다.
2. ( ) 모든 것이 비슷하나 참고는 된다.
3. ( ) 우리 보건소 보다 오히려 빈약하여 참고될 것도 없다.

55. 나는 본 연구원에서 공부한 전 과정을 돌아가서도 여가 있는대로 공부를
1. ( ) 열심히 하겠다.
2. ( ) 가끔 해 보겠다.
3. ( ) 안하겠다.
4. ( ) 별관심 없었다.

56.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1. ( ) 열심히 노력했다.
2. ( ) 공부를 좀 했다.
3. ( ) 별 관심 없었다.

57. 교육과정중 그룹토의는
1. ( ) 부담만 느끼고 배우는 바가 없어 필요 없을것 같다.
2. ( ) 강의만 듣는것 보다 효과적이다.
3. ( )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58. 전 교육 과정을 통하여
1. ( ) 야간 강의 및 조조강의등 너무 힘겨워서 오히려 학습의 역효과였다고 생각된다.
2. ( ) 교육기간 중엔 매우 힘이 겨워 싫었지만 끝내고 보니까 짧은 기간에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
3. ( ) 힘든 일도 없이 무난했다.

59. 토의결과 발표 및 역할극 등은
1. ( ) 부담과 긴장만 주었다.
2. ( )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보탬이 많았다.
3. ( ) 아무런 부담도 없이 재미 있었고 효과적이었다.
4. ( ) 다시는 못할 일이다.

60. 조교의 그룹지도는 교육기간중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1. ( ) 도움이 많았다.
2. ( ) 약간 도움이 된 것 같다.
3. ( ) 별 도움이 없었다.
4. ( ) 오히려 해로웠다.

61. 시험을 치른 것은
1. ( ) 시험 때문에 부담은 있었지만 배운 것을 더 많이 익혔다고 생각한다.
2. ( ) 시험 공부 때문에 산 지식을 얻지 못했다.
3. ( ) 편안히 즐길 수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62.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전입자 또는 동료 가운데 가족계획 요원직을 떠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직을 그 만둔 이유는
1. ( ) 이사(이민 포함)
2. ( ) 결혼
3. ( ) 전직(결핵, 모자보건 요원등)
4. ( ) 병약
5. ( ) 해외취업
6. ( ) 타 직업(회사등)
7. ( ) 가정사정

<ABSTRACT>

A Study on Family Planning Workers' Consciousness toward Their Enviromental Conditions and Training Effect by KIFP

by **Kap Suk Koh***
Moon Sik Hong**

A total of 806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mostly from township level throughout the country were trained for one week as basic course at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in 1973. During the training period, 477 field workers were personally asked on questionnaire to look into the actual condition and environments where they are working in. We can tell that this is the first survey asking questions on occupation of field workers who are under KIFP training in comparison with the survey of different type that we had in the previous years.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herefore, to explain and look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field workers to some extent our knowledge go.

In Korea we have a spacious network of family planning program throughout the country, and also provide the positive family planning service support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present tendency is showing that the questions as to whether the public accept the recommended contraceptive methods or not is greatly depending on the activities of qualified field workers since they are in charge of the right job searching for the person who are in need of advice, and introducing the proper place where the service is available. And the other reason is that a good numbers of general public are really in need of their advices and recommendations o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Therefore, it can be easily assumed that achievement of the target of family planning progrom in Korea is largely relying on the field worker's sincerity, successive efforts and potential capability.

Through the survey a summary of findings which called our attention as a great matter of concern was as follows;

Ⅰ. This survey has shown 9% of total field workers was catholic in religion and 16% as well was same religion out of the age group from 25 to 29. Therefore, in religious point of view, it is considered that having much closer and precise observation and efforts are necessary to the problem on how to treat and get over the accidental pregnancy(unwanted pregnancy failed in using contraceptives).

Ⅱ. It is very doubtful that to what degree the field workers perform their duties with best sincerity and tenacious professional attentions, because the most of field workers' motives to be engaging in that field was told to take a part in social life with neither

* Chief of Evaluation Division, KIFP
** Chief of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ection, KIFP

decisive purpose and intentions, nor economic reasons.

Ⅲ. Looking over the status of the field workers asked by authority to work in the proper line, it was only 7% out of the total field workers. These are all well qualified workers such as the graduate from nursing school aging from 30 to 34.

Ⅳ. What it seems to us interesting was, comparatively speaking, the aged group of field workers has presumably much stronger persuading ability than the younger group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the serious problem to quit their present jobs asked strongly by their husbands.

Ⅴ. Another interesting thing is that this survey showed 19 percent of total field workers has recommended 3 to their relatives as an ideal number of children in stead of 2 what the figure we are insisting on now. It is no wonder worrying about this subconscious wrong concept of field worker recommending 3 in stead of 2 as an ideal number of children will surely cause a big problem and prevail in the actual field working site.

Ⅵ. It was found during the survey that a half of field workers are rather using the old slogan saying "Have Moderate Number and Raise Them Well" as their actual and intentional slogan than the current slogan "Daughter-son, without distinction, stop at two." These wrong concept against the current slogan is also comprising a problem to be solved, in other words, the more sensible and proper slogan appealing and inviting to every general public is timely necessary.

Ⅶ. As far as the field worker's contacting frequency to the public is concerned, this survey shows that two or three times are considered not enough to persuade the public to accept contraception, however, five times at least and six times on average are required to perform it. Grouping the field workers by age in conducting their given mission, it tells that the older needs less frequent contact than the younger group.

Ⅷ. Though it is rare in number, surprisingly it was true, that the field workers themselves pay the oral pill fee in order to, achieve their targets in administration.

Ⅸ. Looking over the status of job satisfaction of field workers, they responded they are not satisfying in their present job excluding 20 percent of total field workers. This tendency and response have appeard more positively in the younger group than the older one.

Ⅹ. In generally speaking, 82 percent of the students (field workers) has revealed that the lectures/training they had at KIFP was too easy to follow except 16 percent out of them were considering it was difficult and bored. The younger in age responded much slower in understanding the classes than the older. However, what we would like to call attention on their responses were; "It was routine, common and bored". In this sense, it is considered that, to some extent, the lecture/training program of KIFP is duely needed to be reviewed in overall aspects.

Ⅺ. Telling opinion on an ideal number of children of the married and that of the unmarried, the former recommended a little bit fewer number of children by 0.3 than the latter. This can be construed that the former is more persuasive than the latter in recommending an ideal number of children to the general public.

XII. In the perfomance of their duties, these field workers thought themselves the oral pill is the easiest method to make the public accept it, on the other hand, the married out of them are posessing the different concept indicating that, from their experience, they have less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loop method. Right in view of the result so far achieved, the loop method is supposed to be coming into wide use in the public in case of filling the existing unmarried slot with the married field workers.

XIII. This report tells that the married field workers have shown more positive attitude in the degree of interest and understanding the lecture/class type training than the unmarried, vice versa, a half of unmarried field workers responded that the practical observation training to health center was great help to understand lectures while the married consider it as a simple and routine orientation.

XIV. On the questionnaire "Was the group practice effective and fruitful?" A total of 44 percent was bearly shown in affirmative attitude, in the mean time, other 54 percent of the group revealed negative which was consisted of unmarried field workers in a large portion.

XV. This survey has indicated one more important fact that the highly educated/schooled field workers such as the graduate of nursing school (college level) are incapable of forming better cooperation rapport with doctors in charge of family planning affairs than those who are less educated. 23 percent of them has shown unsatisfactory.

Following tables show distribution by som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ield workers) utilized for this analysis.

Table Ⅰ. Age Status of the Respondents

Age	Number of F. W.	Percent(%)
—15	15	3.1
20—24	326	68.3
25—29	90	18.9
30—34	23	4.8
35—39	10	2.1
40—44	9	1.9
45+	4	0.8
Total	477	100.0

Table Ⅱ. Marital Status of the Respondents

Marriage	Number of F. W.	Percent(%)
Married	91	19
Unmarried	370	78
Not applicable	16	3
Total	477	100

Table Ⅲ. Educational Status of the Respondents

Schools	Number of F. W.	Percent(%)
Middle Sch.	183	38
High Sch.	262	55
Junior Col. /Univ.	24	5
Not applicable	8	2
Total	477	100

Table Ⅳ. Status of Length of Service of the Respondents

Svc. Yr.	Number of F. W.	Percent(%)
Under 1 yr.	267	56
1—2	166	35
2—3	23	5
3—4	8	2
4—5	3	2
5—6	1	2
6+	7	2
Not applicable	2	
Total	477	100